

21세기 한국교회 교회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이정관(안양대학교/교수)

aram@anyang.ac.kr

한글 초록

한국교회 교회교육은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위기는 현 사회가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시작된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어린이, 청소년들과 청년 그리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가져 왔다. 그동안 기독교 교육의 문제와 그 대안 연구는 수없이 많이 이뤄졌다. 그러나 그 문제점들은 여전히 교회교육의 문제로 남아 있다. 즉 제안된 대안들이 교회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며,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안과 그 방법적인 요인들을 연구하고 적용 점들을 찾아야 한다. 오늘의 교회교육은 포스트모더니즘과 정보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데, 교회교육은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는 기독교 정체성을 위한 교육이다. 이러한 기독교 교육이 신앙적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도전과 위기를 맞고 있다. 기독교 교육은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교회교육이 당면해 있는 다양한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성경이 표준이 되는 삶을 살도록 표준을 세워주는 것이 교회교육의 과제이다. 즉 성경적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한국교회에 대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적과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기독교 세계관의 확립과 사회 안에서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은 기독교 교육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들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기독교 교육의 목표인 이상적 그리스도인 형성에 있어 교회교육뿐 아니라 기독교 교육의 실천을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주제어》

기독교교육, 교회교육, 정보화, 포스트모던, 청소년 학습자

I.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 문제는 교회교육의 문제이다. 성장을 멈춘 한국교회는 급격한 교인 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더는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서 교회를 폐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다. 이와 동반해서 한국교회의 교회교육 또한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위기는 소득의 확대와 경제성장 그리고 1970, 80년대의 가족계획은 오늘의 저 출산문제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현 사회가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반기독교적 부정적인 인식이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어린이 청소년들과 청년 그리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가져 왔다.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 교회교육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교회 내에서 초·중·고등학생의 급속한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수의 교회들이 교회학교에 학생들이 없어서 교회학교가 폐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어촌 지역을 시작으로 하여 대도시의 소규모 교회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현재 교회학교의 위기는 한국교회의 위기와 직결되고 있다.

그러면 왜! 교회학교가 현대사회의 수많은 여건 속에서 어떻게 침체와 마이너스 현상과 폐쇄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연구 분석을 통해서 찾아야 할 대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현실 극복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서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한국교회의 교회학교가 다시 한 번 영적 성장과 더불어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력으로 시대와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교회로 개선될 필요성이 요청되기 때문이다(김국환,

2009). 그리고 우리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다. 교회와 교회교육 역시 이에 맞게 변화하고 새로워 져야 한다. 더불어서 최근의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교회교육에 미치는 위기와 그 영향은 매우 크다. 팬데믹 상황은 교회 예배형식과 교회교육방법과 형식 변화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코로나 19 상황 이후 현재의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기독교 교육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기독교 교육의 문제와 그 대안 연구는 수없이 많이 이뤄졌다. 그러나 그 문제점들은 여전히 교회교육의 문제로 남았다. 즉, 그 대안들이 교회교육 문제해결 대안이 되지 못하고 문제점으로 현재에도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교회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서 변화를 위한 대안과 방법적인 면과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적용 점들을 찾아야 한다. 이 연구를 위해서 먼저 한국 교회교육이 가지고 있는 교회교육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한국교회가 직면해 있는 위기의 원인과 현실을 짚어봄으로써 해결 방안의 실마리를 찾아볼 것이다. 끝으로 교회교육의 문제에 대한 변화와 방향성 등 대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예배와 교육과 그리고 포스트모던의 정보화 상황에서 교회교육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이다.

II. 교회교육의 문제점

한국교회는 교세 확장과 외형적인 성장에만 힘을 쓴 결과로 기독교의 본질인 진리 추구하고 기독교적인 진정한 삶의 의미를 사회에 제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공감과 신뢰를 상실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는 현대사회에 기대가 아닌 실망과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하여 조성국(2004)은 한국교회의 교회교육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보

았다. 한국사회의 세계관과 환경변화에서 초래되는 공교육의 왜곡 때문에 교회학교의 학생 수가 격감하였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의 기회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교육의 새로운 위기를 가져왔다(조성국, 2004)고 하였다. 오늘의 한국교회 교육의 현실은 교인들의 생활 신앙훈련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교세 확장에 치중하였다. 그 결과로 사회생활과 무관한 교회와 교인들을 양산하게 됐다. 이렇게 양산된 교인들은 교회 밖과 교회 안의 생활이 다르다. 교인들 생활의 다름은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영향력은 미미하다(이은규, 2010). 즉, 한국교회는 첫째 교육을 통한 영적, 신앙적인 성장의 관심보다 외형확장이 성장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외형 확장을 추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둘째 교회는 외형적인 성장 추구하고 더불어 재산의 축적은 기독교적 성경적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목회자와 성도들의 부도덕과 비윤리적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 즉 존재론적인 가치보다는 소유론적 가치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문화의 주도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선교 초기 한국교회의 기독교 문화가 세속 문화를 주도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와 동질화될 뿐 아니라 세속 문화에 끌려가는 현상을 보인다. 이것이 한국교회와 기독교 교육이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며, 한국교회와 교회교육의 현실이다.

한춘기(1990, 137-145)는 교회교육의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지적했다. 첫째 비전 곧 이상과 목표의 부재이다. 둘째 교육전문가의 부족 현상이다. 셋째 자료의 부족이다. 넷째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회 지도자의 인식이 부족하다. 다섯째 교회의 기독교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인색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은규(2010)는 “한국교회 교육의 현실과 회복방안”에서 기독교 교육을 활력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특수성을 살리는 데 필요불가결한 삼대 요소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 중심. 둘째, 중생의 필요성 셋째, 성령의 사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많은 연구에

서 지적은 교회교육에 전문가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는 많은 수의 전문가가 있다. 현재까지 많은 수의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한 교육전문가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즉, 교회에 많은 수의 기독교 교육을 공부한 인재들이 있지만, 교육전문가로 남아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한국교회 교회교육은 조금이나마 더욱 발전적인 노력과 변화하려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조성국(2004)은 이 변모를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 복음적 신앙을 통해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차원이다. 둘째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차원이다. 셋째 사회적 관계 안에서 기독교적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차원이다. 넷째 자연 세계와의 관계에서 청지기적이고 문화적 사명을 수행하는 차원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지평의 확대는 신학적 발전과 한국교회의 역사적 경험과 발전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Ⅲ. 교회교육의 위기와 그 현실

교회교육은 학습자들이 먼저 성령체험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자신의 기독교적 정체성과 가치관 그리고 은사를 찾아 개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기독교적인 올바른 인격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것 이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정보화는 교회교육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교회는 시대적인 변화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위기를 맞이했다.

1.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교회학교

한국교회 기독교 신자 수의 정체와 급격한 감소는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

된 이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회가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기술, 정보, 서비스 산업, 탈 제도적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현대인들의 종교적 심성 변화와 스포츠, 연예 등의 취미와 관심 및 생활의 다양성 추구에서 비롯되고 있다(김국환, 2009). 이러한 현상을 사회변화와 관련된 박탈 보상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제기하기도 한다(이원규, 2003, 429-434). 박탈감은 욕구가 증대되는 것과 현실적인 성취 가능성이 일치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생겨나는 심리적 좌절감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성장 과정에서 상대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계층에 대한 기독교적인 심리보상을 의미한다(김국환 2009).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 신자 수의 감소와 교회폐쇄는 기독교가 박탈감과 보상적 역할에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미 부여인 동시에 한국교회와 교육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교회교육의 위기 원인은 교회학교가 본래 가지고 있는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 원인은 교회 스스로가 자처한 것으로, 외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한 나머지 교회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대외적인 신뢰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영향력이 약화 되었다. 더불어 반기독교 정서가 사회 전반에 확산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청소년 학습자들이 교회를 떠났다. 그리고 학부모는 자녀를 교회에 보내려 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교회교육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는 목회자들은 교회학교 교육보다 성인 중심의 목회에만 치중하고 교육에 관심이 없거나 외면한 결과로서 교회교육 자체가 신뢰를 잃어버린 것을 자초하였다.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한 한국 기독교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기독교적 정서가 더 커진 것은, 교회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동시에 더 큰 위기로 다가온 것이다. 그러면 한국 교회교육의 개선 방향은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성인 중심의 목회에서 교회학교 중심의 목회로 전환하는 교육 목회적이고 신앙공동체적 변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리고 교회는 교육현장의 교사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조직을 위한 시스템을 만

들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목회자들이 교육목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더불어서 소규모의 교회가 시행할 수 있는 교육목회와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이 반드시 요구된다. 중요한 것은, 교회교육의 부분적 작은 변화가 아니라 교육목회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회학교 교육에 있어서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다. 교회교육 시스템은 복음을 전달하고, 전달된 복음을 통해서 학습자를 교화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직이나 제도이다. 그러나 시스템이 존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스템은 작동의 문제이다. 현재 교회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할 준비를 해야만 한다.

2. 교회교육 위기의 요인

매년 한국교회 교회학교에서는 교회를 떠나가는 청소년들이 약 8%가 된다. 청소년들이 교회학교를 떠나는 원인은 교회 안에서의 내적인 요인과 교회 밖에서의 외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교회 내의 내적인 요인이다. ① 교사의 문제로 전문적인 훈련된 교사가 없다. 현재의 교회학교 교사들은 사명감은 있으나 사명감과 더불어서 교육을 감당해야 하는 전문적인 기술과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② 내적 요인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기독교 교육의 기능적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더불어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환경, 즉 다양하고 흥미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부족과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의 부족은 매우 심각하다. ③ 담임목사의 교회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이다. 그리고 목회자의 교회교육에 대한 비전 결핍으로 인한 교회교육에 예산 지원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④ 부모들의 교회에서의 신앙교육과 가정에서 신앙교육에 대한 무관심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내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⑤ 계몽주의는 이성을 신앙과 분리하고 신앙적인 것은 비이성적인 영역으로 나누고 인간의 이성이 납득할 수 있는 영역만이 사실이며, 진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신앙은 개인에게 선

입견과 편견을 강요하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교회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 남짓한 교회교육으로 세속 교육이나 미디어 영향력을 이기고 신앙적인 삶의 태도를 확립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처럼 되었다(오춘희, 2003). 이러한 요인들이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요인들일 것이다.

둘째는 교회 밖에서의 외적인 요인이다. ① 출산율의 저하다. 정부의 인구 제한정책의 결과로 인한 저출산의 문제는 인구절벽 현상을 가져 왔고, 청소년과 아동기의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였다. ② 산업발달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기만족과 쾌락을 위한 오락문화와 여행문화의 발달을 꼽을 수 있다. 경제성장과 풍요로운 삶의 향유를 위한 실용적 태도는 오늘날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다른 고정된 거대 이데올로기들이 퇴조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개인적 관심, 자신의 삶에 대한 향유가 최상의 가치로 등장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관심추구와 풍요한 삶의 향유를 방해받는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잠정적으로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로 전행할 것을 예상한다(조성국, 2004). ③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 삶을 이어가는 기독교인들의 가치관과 삶의 형태 변화와 반기독교적 언론 및 매스컴의 악영향을 들 수 있다. ④ 더 나아가 사교육의 증가와 더불어 미디어 발달로 인한 인터넷 게임, 스마트 기기와 휴대전화 등 정보화에 따른 대중매체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 ⑤ 공교육의 입시 위주의 학업과 대학진학의 문제는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심리적인 부담과 스트레스 주었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

셋째는 목회자의 인식 부족이다. 목회자가 교육목회에 대하여 이해와 앎 그리고 배움으로 교육목회 중심의 전환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의식이나 전문적인 교육능력함양의 노력이 부족하다. 미래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 신앙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올바르게 그 신앙이 전수되게 하기 위해선 교육 목회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이러한 기독교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회자에게 교육적

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날 교육은 목회 영역에서 소외가 되고 있다. 교육과정 역시 교육보다는 신학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 중심은 신학이 아닌 '성경 말씀에 기반 된 교육'이었다. 이 점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교육이 목회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에서, 이제는 목회의 중심으로 전환을 일으키는 교육 목회적 교회교육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3. 포스트모던 시대의 정보화에 민감하지 못한 교회교육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실재성의 원리의 삶이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 목적이 인생에서 성공과 경제적 성공으로 소유론적인 성공으로 변하였다. 18세기 계몽주의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건한 신앙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소유한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타고난 이성의 능력을 계발하고 그것을 신장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었다(오춘희, 2003). 그 결과 오늘 우리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가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변화될 것이 예견되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여기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했다. 알고는 있었는데, 준비하지 못했고 대처하지 못했다. 문제도 알고 변해야만 된다는 사실도 안다. 그러나 변화를 원치 않고 전통을 중요시한 것이다. 따라서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생각만 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과거 영광과 능력을 왜 빼앗겼는가? 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왜 잃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대에 따르는 전문성이 부족이다. 과거에는 전문성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따져보지 않았다. 반면에 오늘날은 전문성을 중요시하고, 따지는 시대가 되었다. 둘째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의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야만 한다. 세상에는 재미나고, 좋은 것이 계속해서 새롭게 생성된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항상 전통을 중요시했다. 새로

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민감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없는 확실한 진리이다. 그러나 교육의 변화는 중요한 문제이다.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따른 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함이 필요할 때다.

4. 삶의 교육과정 부재

교회 교육과정은 청소년들의 생활 모습을 변화시켜 준다. 교회 교육과정은 소망을 만족시켜 주며, 생각을 변화시켜 주는 실재성의 실질적인 신앙을 원한다. 그러나 오늘의 청소년들은 신앙을 신비로운 면으로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행동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자신들이 들은 바를 실천에 옮기고 나타내는 것에 의를 둔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청소년 신앙교육의 실행은, 도덕성과 시민성과 같은 신앙적인 면에서 매우 실제적이고 사회생활에 중요하고도 보편인 핵심 가치들을 기독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가치들에 한 사회 책임을 실천으로 공유하는 신앙형성의 학습을 거의 제공하고 있지 않다(이은성, 2019). 따라서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 살게 하기 위한 교회교육이 감당해야 할 것은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이다. 이것은 이웃에 대한 봉사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는 교회교육을 통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명령적인 삶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교육을 통한 삶의 교육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첫 번째 단계(이정관, 2015)로 성경의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현재의 생활 태도, 행동, 그리고 환경 등을 살피도록 도와야 한다(이정관, 2014). 즉, 성경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교육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라고 삶의 교육과정을 명령한다.

IV. 대안으로서 교회교육

우리는 현대사회를 포스트모던 사회라고 한다. 포스트모던 사회는 보이고 만져 져야만 믿는 이성을 가치로 여기는 사회이다. 그런데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보여 지고 만져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독교 교육은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교회교육 전체를 대상으로 당면해 있는 다양한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이주아, 2012).

1. 대학의 기독교교육과 연계한 교회교육

대학과 교회는 함께 한국교회의 교회교육을 발전을 위하여 나뉠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두 기관이 연계를 통하여, 교회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와 교회의 유대관계 개념은 학교에 대한 교육학적이고 정책적인 것과 사회학적인 개념을 비롯하여 역사적인 것과 동시에 교회 교육학적인 관점에 기초해 있다. 교회교육은 실존 지향적이고 소유론 적인 것과 존재론적이며 가치 지향적인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학습자들의 가치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어야 한다.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종교적인 형태 구성의 부분에 있어서 가족들과의 관계와 더불어 늘어나는 사회적인 격차 안에서 종교적인 사회화 문제가 현저하게 대두될 수 있다(강문규, 2013). 따라서 대학의 기독교교육과 교회교육과의 유대관계 개념은 이러한 문제의 상황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기초로 하여 학습자들의 가치변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실재적으로 학교와 교회 상호 간에 다양한 협력 가능성과 형태들이 현장에서 존재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적이고 사회적 디아코니(Diakonie)와 더불어 독일 인문계 고등학교 상위 클래스에서 시행되었던 한 프로젝트와 예배의식의 핵심과 아울러 초등학교의 영역에서 거행되었던 행사를 언

급할 필요가 있다(강문규, 2013). 두 기관의 연계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의 교육적 측면뿐 아니라 교회교육도 교회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고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행함이 있는 교육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 하심부터.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행 1:1). 교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행동하는 교사로서 모범을 보이셨다. 이 모범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선생 된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교훈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교회 신앙공동체의 삶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영역이 교회와 교회 밖의 모든 세상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교회의 신앙교육은 제자 직과 민주 시민으로서 삶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할 당위성을 가진다. 하지만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제자 직을 강조하는 교회교육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신앙공동체,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주도하고 변화 시켜나갈 수 있는 ‘군사 된 자들’(딤후 2:3-4)로 바로 양육하지 못한 면이 있다(장신근, 2009, 294). 그리고 한국교회에는 현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삶의 현장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모든 성도에 마지막 부탁의 말씀은 제자 삼아 가르쳐 행하게 하라는 말씀이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하

여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즉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행하게 하는 것이다. 가르침은 실제성의 원리인 행함이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기독교 교육은 학습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즉 야고보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는 말씀이 실천되게 하여야 한다.

행함이 있는 교육의 특성은 성경 말씀이 삶에 표준이 되게 하고, 성경의 권위에 대한 겸손과 복종이다. 따라서 행함이 있는 교육의 방법은 첫째,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것이다.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미래에 대한 예언일지라도 과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것이다(이정관, 2015). 둘째 귀납적 접근으로 관찰, 해석, 적용 단계에 거친다. 관찰에서는 구조, 문화양식, 분위기 등을 관찰한다. 적용에서는 이 말씀이 나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생각하게 한다(주인옥, 2008). 셋째 의미교육이다. 성경의 사실을 수동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요구를 숙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넷째 발견학습으로,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생각하도록 하게 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성경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다(이정관, 2015).

따라서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은 청소년 스스로가 신앙체험을 하게 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 신앙교육은 교리를 얼마나 알고 있고,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이미영, 2006). 다시 말해서 신앙교육은 신앙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실천하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회개와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회교육의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알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복음을 깨닫고, 셋째, 교회와 사회에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며, 넷째, 예배와 선교 그리고 교육의 사명을 통해 하

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이루어서, 다섯째 교회와 세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상을 형성하고, 여섯째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3. 잠재되어 있는 교육전문가 활용

오늘날 교회교육은 준비되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교육을 감당하고 있다. 교회교육을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교육은 교육 전문성을 요구한다. 한준기 등 많은 연구자는 교회교육 현장에 교육전문가가 부재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전문가의 부재를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는 교육전문가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한 많은 교육전문가 신자들이 있다. 현재 그들은 교회학교 교육현장에 참여하지 않는다. 즉,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졸업한 전문 교육자들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간은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나면 교회학교를 떠난다. 왜냐하면, 교회교육이 그들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은 교육현장을 떠나는 교육 전문가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을 교육전문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와 목회자는 이들을 교육전문가로 인식하고, 교회교육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찾아내고 세워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에서 시행은 하였으나, 현재는 유명무실한 교육사 제도를 범 교단 적으로의 시행이 절실한 형편이다.

4. 교회교육의 교육역량 혁신

교회교육은 교육역량과 혁신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환경 변화에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교육환경변화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교육은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제 교회교육이 현실 안주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교회교육이 전문적이고 시대 상황에 따른 변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시대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교회교육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공학과 기독교 교육철학에 기초한 교육역량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 교회는 교회교육의 교육역량 혁신과 강화를 위해서 교회교육과 관련된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과 기독교 교육전문가들 그리고 일선의 교사로 구성된 전문가 토론집단이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 의한 교회교육의 중·장기적인 교육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교회학교 전문교사 양성과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과 목회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 혁신과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회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와 교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5. 포스트모던 사회에서의 기독교교육

오늘의 교회교육 현장에는 모던 사회를 경험하며 삶을 사는 교사와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학습자가 공존하고 있다. 교회교육은 포스트모던 사회를 살아가는 학습자들이 포스트모던이라는 개인화되고 다원화된 현실을 진지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회학교 학습자들은 기독교 정신과 충돌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진리와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것들과 화해하며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특별히 기독교 교육은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진정한 기독교 정신을 함양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은 복음의 담지자인 청소년 학습자들이 다양한 가치관의 현실에서 어떻게 자신을 정립하며, 타인들과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 하

는 과제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교회교육은 보편적이고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지도자들에게 교육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원석, 2018, 82-83).

1) 포스트모더니 교회교육에 미치는 영향

오늘의 교회교육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교회교육은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는 기독교 정체성을 위한 교육이다. 이러한 기독교 교육이 신앙적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도전과 위기를 맞고 있다. 절대적인 진리, 보편적인 진리란 허구이고, 어떤 사람이나 특정 사회 집단의 욕구를 위한 상대적인 진리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의 죽음을 선언한 니체(Nietzsche, 1844-1900)의 철학에 뿌리를 둔 포스트모더니티의 사유양식인 해체와 파편화, 탈 중심, 다원성과 상대성 논리 앞에 기독교 신앙교육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김선아, 2013). 이에 대해서 한미라(2013)는 포스트모던 사회에 대해서,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이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의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더욱이 종교에 주는 영향은 대부분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한다. 첫째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기독교 교회들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편견과 우려 때문이요, 두 번째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중 하나가 거대 담론들의 해체 또는 탈 구조화이기 때문이다.

2) 포스트모던과 교회교육방법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기독교 교육은, 첫째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성경을 통해 어떤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할 것인가? 의 자세로 옮겨가야 한다. 즉, 정체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내용 중심의 성경 교육에서 과정 중심, 체험 중심의 성경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기독교 교육은 교육공간에 서사성을 부여해야 한다. 교육공

간에 서사성을 부여하는 것은 학습자 스스로 교육내용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학습환경을 구성하는 의미이다(고원석, 2018, 79-81).

따라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교육은 먼저, 오늘의 정보화 사회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 또는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교육의 주체는 권위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에게로 변화하고 있다. 교육 방법도 인지적이고 주입식 방식에서 체험하고 유희적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사회문화의 발전과 변화에 있다. 과거 교육이 과거의 전통에 근거한 교육이었다면, 오늘의 교육은 학습자의 현실과 미래를 고려한 교육으로 변화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은 학습자들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미래 시대는 창의성과 자발성, 상상력 위주의 교육으로, 이는 인지적 학습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인지적 내용을 알게 하는 인지적 교육 형태에서 참여해서 느끼게 하는 체험적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 교육이란 교육의 내용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직접 체험하고 느끼게 함으로써 교육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원석, 2018, 84-58). 따라서 학습자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지향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습자 간의 유기적인 영적 관계가 성립되고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실천될 수 있다(함영주, 2013).

다음으로, 포스트모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것을 찾으려고 교회에 온다. 그들이 실제적인 것을 말할 때, 그들은 증명을 원하거나 진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최승규, 2008). 따라서 포스트모던 시대에서의 기독교 교육 방법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사일케(Christoph Scheilke, 1998)는 학습자가 적극적인 참여가 일어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환경 속에 환대, 소통, 기회, 우회, 몰입의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원석(2018)은 자신의 저서인 『현대 기독교 교육 방법론』에서 포스트모던 시대 교육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들음의 기독교 교육: 언어와 이야기; 읽기의 기독교 교육: 텍스트와 성서해석; 바라봄의 기독교 교육: 현상, 서술, 추상; 바라봄의 기독교 교육: 상징, 예술, 광고; 놀이의 기독교 교육: 놀이의 교육학적 이념과 비블리오 드라마를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다.

6. 정보화를 통한 교회교육

현재 우리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는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가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현재 교회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정보사용을 통한 교육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화는 인류에게 많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이면에는 부정인 요소들로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즉, 우리의 생활양식의 커다란 변화와 커뮤니케이션 등의 많은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정보가 제공하는 정보들에 의해서 사회조직의 변화와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는 사회변동 요소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다. 현대 정보화 사회는 광케이블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정보가 제공된다. 이 정보는 인간 생활환경의 변화와 함께 정신·문화 세계를 지배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지식문제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정보화 사회는 과거 어느 때 보다 지식을 학습하는 주요활동으로서 교육의 기능에 크게 부각 되고 있다(김기숙, 2003). 그리고 정보화 사회는 인류에게 지식혁명이라고 할 만큼 많은 양의 지식을 전달해주는 지식이 기반 되는 지식기반사회이다.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고속 인터넷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가 지식이 되는 정보화 사회가 이루어졌다. 문제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동시킬만한 이 지식이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할 인간의 인간 됨(인격)과 관련된 지식이 아니라,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된 지식이라는데 있다(김기숙, 2003). 이러한 지식의 기반 대부분은

자연과학적 지식으로 생산되고 이루어진 정보는 반기독교적인 지식으로 넘쳐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보화 시대의 교육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김기숙은 말한다. 첫째 정보화 교육의 필요성을 논하기 전 지식교육과 관련하여 지식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명하되 지식의 본질과 궁극적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뿐 아니라 시대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김기숙, 2003).

1) 교회교육의 정보화 시대 적응

정보화 사회에서의 기독교 교육의 과제는 먼저, 교회교육은 정보화 시대에 적응해야만 한다. 그리고 교회는 학습자에게 정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즉, 무분별한 도입과 사용이 아니라 정보의 사용 목적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기독교 교육의 본질적 기능 역할이 가능해야 할 뿐 아니라 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교회가 하여야 할 일은 정보화 사회에 대하여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일도, 변화에 무관심한 것도 아니다. 성경의 원칙적인 입장에서 자세를 견지하되, 시대나 문화 변화에 주목하고 대처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김연종, 1997). 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정보화 사회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김연종(1997)은 첫째 정보사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배양해야 한다. 셋째 전문가 양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넷째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인정해야 한다. 다섯째 교회 체제의 정보화가 필요하다. 등 다섯 가지가 선행되어야 함을 말했다. 여기에 더하여 여섯 번째 성경이 표준이 되는 기독교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해야 한다. 성경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사는 교회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사회의 기준들이 우리의 삶에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문옥(2007)은 정보화 사회의 익명성 환경에서 성경 학습자로서의 네티즌들의 참여방법과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문제도 오늘의 교회교육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대안으로 기독교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일곱째 정보화 사회의 교육의 장의 확대이다. 교육의 장은 물리적인 장에서보다 확대되어 가정, 지역 사회, 각종 사회기관, 대중매체 등 중요한 정보교육 매체로 활용하게 된다. 사회 전체가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교육 대상이다(박문옥, 2000).

그리고 2020년 1월에 시작된 코로나 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정보화 및 대중매체 활용의 현실성을 말해준다. 유재덕(2020)은 코로나 19 팬데믹은 디지털 문화를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원격교육, 원격진료, 원격근로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교회는 현재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현장 공동예배와 교회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대면에서 비대면으로의 전환이다. 즉, 현장 교육의 한계성을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중매체를 이용한 온라인예배와 교육으로 대체 된 것이다. 이처럼 교회가 디지털 문화에 적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전하고 있다. 상당수 교회가 가상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을 여전히 망설이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에 적응해야만 한다(유재덕, 2020). 그리고 예배자와 학습자들이 교회를 안 온다면,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자들을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교육이다. 온라인에서 사이버레이션, 즉, 사이버 대인관계를 넓히고 적극적으로 온라인 대화에 참여하며 청소년 세대와의 사이버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한미라, 2013). 김성중(2020)은 코로나 19 이후에 기독교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세계시민과 만남을 강조하는 기독교 교육, 둘째 온라인을 통한 만남을 중시하는 기독교 교육, 셋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섬기는 기독교 교육을 말함으로 온라인을 통한 기독교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교육 방법을 하이브리드 시키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이 기독교 교육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한미라, 2013)을 주는

교육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2) 교회교육이 현대사회에 해결해야 할 문제

정보화 사회에서 기독교 교육의 과제는, 현대사회는 해결해야 할 기독교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 문제들 자체가 동시에 기독교 영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될 수 있다(박문옥, 2007). 또한,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 의식과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인들이 현대가 직면한 문제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 의식을 고양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참여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백은미, 2015) 돕는 다음과 같은 교육을 해야 한다. 첫째,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가 없다. 우리는 신학적 편견에서 오는 이야기를 원치 않는다. 다만 우리에게 '예수 이야기'가 필요하다. 우리 삶 속 깊이 스며드는 '예수 이야기'가 삶의 이야기가 되고, 교회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 그때 영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목적 사고, '마디'와 '이름'과 '흐름'으로 표현되는 본문이(text) 없는 사회에서 기독교의 성경 본문은 세속화의 물결 속으로 함몰될 위기를 맞고 있다(박문옥, 2007). 오늘의 교회교육현장에서는 성경 본문보다 순간순간의 정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일들이 점차로 증가 되고 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기독교 영성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문 없는 사회적 책무성은 기독교적 영성일 수가 없다. 그곳에 본문이 없기 때문이다. 정보화 시대를 가름하는 '본문 없음'은 오히려 기독교적 본문을 제자리에 위치시키는 일이(박문옥, 2007) 근본적인 기독교 교육의 회복이다. 세 번째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마디'가 되어버린 고독한 현대인은 결코 성숙한 사람일 수 없다. 매우 즉흥적이고 지적 능력이 없는 외로움의 삶이다.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박문옥, 2007). 누구도 현대인들에게 동반자가 되어줄 수 없는 정보화 사회에서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다. 즉,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신앙의 양육과 전달 그리고 기독교적 삶의 양식 형성으로 인격 변

화에 도움을 준다(김혜자, 1995). 정보화 시대에 기독교 교육이 근본적으로 행해야 하는 태도는 성경으로 정보화 사회를 변화시켜가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그것이 비록 타락하였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징계하거나 멸망시키기보다는 새롭게 고쳐 나가기를 원하신다(박문옥, 2007). 즉 실재성 원리에 의한 교육의 필요성을 갖는다.

VI. 나가는 말

교회교육의 주요한 사명 중의 하나가 미래세대를 세우는 일이다. 미래세대가 세워져야 미래 한국교회의 희망이 있다. 그런데 포스트모던 시대의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교회교육의 내일을 예측하고 대안 제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분명한 것은, 오늘의 교회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한다. 미래세대 양육을 위한 시급한 과제는 신앙교육이다. 오늘 미래세대는 포스트모던의 과학 문명의 영향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현실 공간보다 가상의 공간에 살고 있다. 이 문제는 오늘의 학습자들이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 환경에 심각할 정도로 노출되었고, 적지 않은 수가 중독되어 있다. 이들에게 성경이 표준이 되는 삶을 살도록 표준을 세워주는 것이 교회교육의 과제이다. 즉 성경적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 한국교회에 대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적과 이해와 기독교 세계관의 확립 차원과 사회 안에서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세계와 관련한 청지기 직 수행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은, 기독교 교육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들이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의 목표인 이상적 그리스도인 형성에 있어 한국교회는 교회교육뿐 아니라 기독교 교육의 실천을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가장 먼저, 미래세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이를 위해 교육에 과감한 투자와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또한, 목회자의 인식 변화와 목회 방향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문규 (2013). 독일 개신교학교와 관련한 교회교육의 노력. **신학과 실천**, 36, 513-540.
- 고원석 (2018). **현대기독교교육방법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교육교회 (2015). 한국교회의 현실진단과 개선방향을 위한 간담회. **교육교회**, 14-15.
- 김국환 (2009). 한국교회 성장을 위한 기독교 교육적 방안 모색. **기독교교육논총**, 21, 61-83.
- 김기숙 (2003). 한국교회 갱신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정보**, 9, 8-42.
- 김선아 (2013). 포스트모던시대에서의 코메니우스 교육사상의 현대적 해석과 적용. **기독교교육논총**, 36, 97-126.
- 김성중 (2020). 코로나 19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63, 39-64.
- 김연중 (1997). 정보화 시대의 기독교교육-인문학적 접근. **기독교교육연구**, 53-78.
- 김혜자 (1995). 정보화 사회의 기독교교육. **총신대논총**, 14, 79-107.
- 박문옥 (2000). 교육정보화 환경과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정보**, 1, 266-315.
- 박문옥 (2007). 정보화 사회의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14, 47-86.
- 백은미 (2015). 소피아 파스의 교육신학을 통해 본 한국 기독교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42, 169-199.
- 오춘희 (2003).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기독교의 가능성과 그 전망. **기독교교육정보**, 7, 43-73.
- 유재덕 (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63, 13-37.
- 이미영 (2006). 생명력 있는 청소년 신앙교육을 위하여 - 청소년 신앙교육의 현실과 전망. **우리신학**, 4, 183-214.
- 이원규 (2008).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나남출판사.
- 이은규 (2010). 한국교회 교회교육의 현실과 회복방안. **신학지평**, 23, 93-120.
- 이은성 (2019). 교회 청소년 신앙교육에서 민주 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 **신학과 실천**, 64, 227-251.
- 이정관 (2014). 성경적 기준의 삶을 위한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 **신학과 실천**, 42,

639-661.

이정관 (2015). 교육과정으로서의 실제성의 원리. **신학과 실천**, 43, 433-459.

이정관 (2015).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경교육과 실제성의 원리. **신학과 실천**, 43, 433-459.

이주아 (2012). 한국 청소년의 위기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대안 모색.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3, 351-375.

장신근 (2009). **창조 교회교육 네비게이션**. 서울: 커뮤니이션.

조성국 (2004). 한국 기독교 교육의 교육적 인간상의 이상과 현실. **기독교교육논총**, 10, 203-239.

주인옥 (2008). 삶의 변화를 위한 성경공부 방법에 대한 탈비평적 해석. **기독교교육논총**, 18, 259-282.

최승규 (2008).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 청소년 교육에 대한 연구. **기독교교육연구**, 19-1, 153-173.

한미라 (2013).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교육 상생인가 해체인가?. **기독교교육정보**, 36, 1-43.

한춘기 (1990). **한국교회와 교회교육**.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함영주 (2013). 포스트모던 학습환경과 기독교교육 방법. **복음과 교육**, 14, 49-71.

Scheilke, C. (1998). Zukunft der Bildung. *Religionsunterricht der Zukunft*. Hrg. von Ehemann, Reinhard. Freiburg: Herder, 189-202.

Abstract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n Churches in the 21st Century

Jeung Gwan Lee

Professor, Anyang University

Church education in Korean churches is facing a very serious crisis. This crisis is a negative perception of the church as viewed by the present society. The negative perception of the church has led to children, adolescents, young adults, and even adults leaving the church. There have been countless studies on the problem of Christian education and its alternatives. However, those problems still remain a matter of church education. The alternatives do not become viable and remain a problem. To solve these problems, a paradigm shift is required, and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church, it is necessary to study alternatives and its method factors and find application points.

Today's church education is absolutely influenced by postmodernism and informationalization. However, church education is education for Christian identity that transmits Christian faith. This Christian education is facing challenges and crises against its religious and academic identity. Christian education has a responsibility to be aware of this reality and to present alternatives to overcome various crises facing church education. Therefore, it is the task of church education to establish standards so that we can live a life where the Bible becomes the standard. In other words, it is to give them biblical faith.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point out and understand Christian faith in the Korean church, which has been evaluated as insufficient. In addition, establishing a Christian worldview and realizing the

Kingdom of God that practice justice and love in society are tasks that can be accomplished efficiently through Christian education. Therefore, the Korean church should actively seek ways to support the practice of Christian education as well as church education in forming ideal Christians which is the goal of Christian education.

《 **Keywords** 》

Christian education, Church education, Information, Postmodern, Youth learner

- 투고접수일 : 2020년 11월 30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12월 26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12월 26일